

# 공동육아의 장애아 통합교육

송 경 선

(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

## 1. 통합교육의 개념 및 의의

아이들은 저마다 다르다. 기질과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 배움의 속도,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지만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 아이, 친구를 좋아하면서도 적절히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 달리기엔 잘하지만 학습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아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 등 어린 이집 현장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게 된다.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시청각에 손상이 있거나, 정서나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가 흔히 장애아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자신만의 개성과 강약점을 가진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관심사가 있고, 배울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며,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단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need)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아를 ‘뭔가 부족한 아이’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기대를 갖기 쉽다. 그 아이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장점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부족한 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바꿔 ‘부족한 면’이 아니라 어떤 필요나 요구(need)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아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 신체가 불편한 아이는 휠체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접근하고 싶은 요구(need)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고 싶은 요구(need)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요구(need)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children with special needs)’로 부른다. 요구 중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1)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요인들

장애아를 통합하는데 있어 말로는 동의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 ①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라면서 쌓여 온 선입견이 있다. 무엇을 보던 ‘이건 정상이야’, 혹은 ‘비정

상이야'라고 구분하는 버릇이 있다. '정상', '비정상'의 관점은 다양한 인격체를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쉽게 '나'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버리게 된다. 이것이 차별을 낳게 된다. 정상이란 어떤 사회가 어떤 집단을 '정상'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사회의 영향 속에서 생겨난 자기의 기준, 가치관 등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을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규정하는데서 나온다.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 '정상'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는 경우 요즘에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지만 30-40년 전만 해도 비정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정상적인'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혹은 '일반적인'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구분짓는 용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두려움

장애아를 처음 대하는 교사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와 친숙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다. '장애'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상황'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상황을 회피해버리면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조심스럽게 탐색해보고, 친숙할 시간을 갖고, 관련된 정보도 얻고,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두려움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 ③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장애아는 '00이 어렵고, 00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미리 도와준다'는 생각은 장애아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00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00는 00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나 자선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을 줄지 모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장기간 받을 경우 매우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자라기 쉽다. 교사들은 아동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아동의 발달이나 성장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사는 일반적인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아동의 특성 및 현행 발달수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2) 통합교육의 개념 및 목표

통합교육이란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나 가족, 또래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에서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최소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의 원칙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환경에 배치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고, 일반학생과 최대한 통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통합교육의 목표는 장애아동이 정상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skill)을 배우고, 일반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자립적이고, 가치있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적인 배려 없이 일반아동과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아동은 통합된 환경에 배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또래집단과 함께 연령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며, 긍정적인 자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아동만이, 일반아동만이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음이 서툴고 몸짓이나 한두 단어로만 의사소통하는 소영이라는 아동이 있다면, 소영이는 언어치료나 교육을 통해 자신의 발음이나 표현 언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사나 일반아동 역시 소영이의 의사소통방법을 이해하고, 소영이의 욕구를 읽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영이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하여 소영이가 정확한 발음과 적절한 길이의 문장으로 말할 때까지 교사나 일반아동들이 외면하기만 한다면, 소영이는 일반 환경에서 말을 배우거나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잃게 되어 또래들과 관계 맺기도 어렵고, 언어발달도 훨씬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 3) 통합교육의 의의와 혜택

일반아동만 지내던 환경에서 장애아동의 등장은 하나의 도전이다. 환경을 접근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장애아동 자신의 발달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교사들의 역할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아동과의 통합을 통해서 교사, 부모, 아이들 모두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

먼저, 교사들은 개별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일반아동의 약점에 대해서도 더 그렷워졌으며, 아이들을 더 믿고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한다(송경선, 최윤희, 2004). 집단 중심으로 교육을 해왔던 교사들의 입장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은 개별아동에 대한 깊은 유대와 관심,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 등의 자질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울러 교사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반아동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 나이에 통합을 경험할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자연스럽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살펴 적절한 돌봄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배우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돌봄과 배려를 적절히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자신과 다른 생각, 행동, 삶에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이러한 개방성으로 스스로의 생각, 행동, 삶을 성찰하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은 공동육아의 교육철학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소중한 교육경험이다(이기범, 2004).

장애아동은 통합 환경에서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많은 자극과 모방,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 일반아동과 교사, 일반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나이에 적절한 환경 등 분리교육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아동은 주변의 따뜻하고, 수용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갖게 된다. 또한 또래아이들을 통해 나이에 적절한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통합경험은 성인이 되어 자립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며, 아동 및 가족들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 2. 공동육아 통합교육의 현황

### 1) 역사와 현황

공동육아에서 통합교육은 1994년 신촌 우리 어린이집에서 2명의 장애아동을 통합하는데서 출발했으며, 1997년 2개소, 2002년 23개소, 2004년 20개소 등으로 확대되었다(올해는 조사중이라 아직 확실하지 않음). 대부분 1명의 장애아동을 통합하고 있으며, 2-3명을 통합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 통합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일반교사들이며, (사)공공교 차원의 교육 지원은 통합교육 현장지원 전문가(일명 페다)를 통한 현장지원, 현장학교 교육, 심화교육 등으로 전문성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2005년 말 심화교육을 받은 교사를 중심으로 통합교사모임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장애아동 부모모임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부모모임'이 구성되어 가족지원캠프와 공부 모임을 꾸려가고 있다.

### 2) 원칙

공동육아가 통합교육을 시작하면서 표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아동은 정원의 10% 내외로 한다.

인구분포학적으로 전체국민의 10%(UN의 통계자료)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구성비율로 정한다.

② 장애정도나 유형을 기준으로 통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장애정도나 유형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으며,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아이들은 더 우호적인 경우도 있다.

③ 장애아동을 통합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통합비용을 전적으로 장애아동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각 조합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조합과 장애아동 부모가 일정비율씩 분담하거나,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장애아동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다.

### 3) 준비과정

조합 정관에 장애아동 통합을 명시하고, 조합원(부모)교육, 교사 재교육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통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조합원 교육은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정기,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교사회에서는 통합교사를 뽑을 것인지, 장애아동이 들어오는 방 아동의 숫자를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고, 교사회 전체가 통합교육을 위해 어떻게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것인지 생각을 모으게 된다. 조합과 이사회는 재정이나 인력지원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조합원들인 일반 부모들은 장애아동의 가족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부모 역시 공동체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통합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 4) 입소과정과 적응기

장애아동의 입소는 일반아동과는 별도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아동은 관례에 따르면 되지만 장애아동은 교사회와 이사회, 부모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와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입소과정과 적응기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홍보와 대기자 관리

어린이집을 홍보할 때 장애아동의 통합을 한다고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

장애아동의 입소의뢰가 들어오면 아동의 장애나 신상에 관한 필수사항을 기록하고 바로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다.

#### ② 상담

아동의 장애 혹은 발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신변처리,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정서적인 문제 등).

부모의 관심사를 파악한다.

입소절차와 일정을 알린다(교사회와 이사회와의 협의, 해당 방모임의 동의 등).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육아의 특성상 여러 사람의 동의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며, 과정이 더디고 복잡한 반면 이후에 아이와 가족의 든든한 지원망이 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상담내용은 반드시 기록한다.

#### ③ 입소 과정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회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해당교사만의 일이 아닌 교사회 전체가 나누고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며, 역할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한다. 장애아동 통합교육은 어린이집 안에서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사회가 통합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찾고, 연결한다. (사)공공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통합교육 현장지원 전문가(폐다)의 현장지원과 교육이 있다. 보육정보센터(중앙, 서울, 각 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현장지원도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외부에서 진행하는 통합교육 연수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의 합의와 해당 방모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교사회와 밀접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조합원도 공동의 멤버이므로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다.

#### ④ 방 배치

방 배치는 가능한 장애아동의 연령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 ⑤ 입소 후 적응시기

아동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적응시기를 갖는 것이 좋으며, 아동의 적응상태에 따른 시간 조정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응시기동안 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아동의 적응을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교사는 부모에게 장애아동을 온전히 맡겨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아동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아동의 관심사와 놀이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아동과 친밀해지는 시기로 갖는 것이 좋다.

전일제와 반일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전일제일 경우 터전의 다른 아동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통합교육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치료서비스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치료서비스를 어린이집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반일제 등의 융통성을 두고 외부에서라도 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공동육아 통합교육의 실제

#### 1) 교사와 아동의 유대

교사가 장애아를 교육하기에 앞서 교사와 아동의 애정 어린 유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서툴고, 자기표현이 힘든 장애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근접지대에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를 모방하고,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아동의 기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관심사, 아동의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함께 아동과 유대를 갖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이러한 유대는 적응기동안 이루어지며, 교사는 일과에서 보여지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 기록해두어야 한다. 아동의 행동을 관찰할 때 유의점은 지나치게 장애에만 초점을 두어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같은 또래의 아이로서, 자기 자신만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아이로서, 그러면서도 장애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

일반적으로 어린 유아기에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직 편견이 없고, 생각이 자유로운 아이들은 나와 다른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세심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

### ① 적절한 설명과 시범

배려교육에서 기본적인 요소는 모델링(modeling), 대화(dialogue), 실천(practice), 확증(confirmation)이다(Noddings, 1992, 추병완, 박병춘, 황인표, 율김, 2002). 교사는 일반아동들과도 배려의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장애아동을 배려하는 것을 일반아동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배려하는 마음이나 행동은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궁금해 하거나 질문을 할 때 적절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대화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화란 근본적으로 열려있는 것이며, 이해와 공감, 인식을 위한 공동의 탐색활동이기 때문이다.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라도 교사는 그 아동의 동기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가 친구를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혹은 “네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교사가 특정행동을 승인하지 않지만, 그 행동보다 더 나은 자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갖게 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아동들이 질문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장애아동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설명이나 대화를 할 때는 분위기도 중요하다. 교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이들도 장애아동과 지내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느낄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설명중 적절한 예를 들어본다.

예) “너희들 중에 같은 나이인데도 키가 크고 작은 아이가 있듯이, 말을 배우는 것도 빨리 배우는 아이가 있고, 늦게 배우는 아이가 있는 거야. 네가 친절하게 말도 걸어주고, 그 아이가 무얼 말하려는지 귀기울여주면 ‘00도 더 빨리 말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는 ‘생각주머니’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생각주머니의 모양이 달라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여러 번 설명해주고, 쉽게 말해주면 알게 될 거야.”

### #사례 1#

오늘은 애호박전을 하는 날이에요. 윤지하고 민서는 아직 오지 않았네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야 할 텐데... 민들레께서 호박을 씻어 준비해주셨어요.

아이들은 도마를 깨끗하게 씻어왔지요.

“애들아 오늘은 양 손을 이렇게 펴 봐.”

“왜?”

서용이가 내민 손은 손가락이 아홉 개입니다. 손가락 하나 없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 마음은 다른 친구 손가락이라도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심통이 나서 친구들을 발로 차버리고 모래를 끼얹어버리기도 했어요. 자기 손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속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이 있어서 요리를 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손아 고맙다' 하고 자기 손을 한 번씩 만져주자.” 아이들은 모두 손을 만져 줍니다.

“서용이는 이 손가락을 녹즙기 사고로 잃어버렸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아플 거야, 우리 모두 준용이 손을 만져주고 뽀뽀도 해주자.”

그리고는 코뿔소가 먼저 서용이 손을 '서용이 손 예쁘다'라고 하며 쓰다듬어 주고 뽀뽀를 해주었어요. 세빈이, 우제, 선재, 가은이도 모두 서용이 손을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말하며 뽀뽀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모두 준용이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다섯 살 서용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요리시간에 날아다녔어요. 덕분에 애호박전은 엉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서용이와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해요 서용이는 오늘 물론 두 손을 다 사용해서 요리를 즐겁게 하였지요.

## ② 모둠활동

모듬은 아이들의 생각을 모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듬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이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자주 일어날 때, 아이들 간에 편견이 굳어지거나, 그로 인한 행동이 고착화될 때 모듬을 활용하면 좋다. 모듬은 반드시 전체아이들이 모일 필요는 없고, 모듬이 필요한 아이들끼리, 소집단, 대집단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를 초대하여 장애아동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 속에서 느꼈던 부모들의 마음, 아이에게 갖는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부모들의 이야기 듣기는 입소 후 1-2개월 후가 적당하다.

#사례 2# 서영 엄마 얘기

## ③ 놀이를 통한 통합활동

놀이는 아이들의 생활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장애아동은 대부분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거나, 집단놀이에 참여하는 능력이 부족해 교사의 개입이나 중재를 필요로 한다. 장애아동의 참여를 돕고,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규칙을 수정



하거나, 장애아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함께 하면 좋다. 우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놀이(예: 윗놀이), 애정표현놀이(예: 돌아돌아 짹짹), 전래놀이(예: 강강술래), 대상아동의 장점이거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놀이 등이 있다.

#사례 3#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수정

#### ④ 짹 활동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이들은 매일 오전 나들이를 떠난다.

### 3)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통합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수혜자는 장애아동이다. 장애아동은 통합 환경에서 또래들과 만나고, 생활하면서 자신만의 발달과제를 성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차와 교육적 필요가 다양한 장애아동에게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IEP)을 작성,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개별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는 아동의 장단점, 현행수준, 발달영역(운동성,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정서 및 행동, 신변처리 등)별 장단기 교수목표, 관련 서비스(언어, 물리, 작업치료 등), 평가절차 및 기준 등을 작성하고, 실행한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의 작성 예는 <부록 2>에 나와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을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 회의를 실시한다. 이 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 일반교사, 통합교사(특수교사), 치료사 등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 및 부모가 참여하여 아동의 교육과 치료를 위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된다. 일차적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교사는 어린이집의 매일의 일과 속에서 아동의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사, 간식시간, 양치질하기 등의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아침 모듬이나 나들이를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이처럼 개별화교육 계획을 일과에 적용한 활동도표는 <부록 3>에 실려 있다.

#### [참고문헌]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제2권 교육.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1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2004

<유아특수교육>, 이소현. 학지사. 2003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oddings, 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2

※ 장애 반편견 도서목록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 내 [현장학교 기초과정] 커뮤니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